

사패산 관동 터널  
피해보상금 일부

# 전용 여부 논란

## “관공비·장학기금 명목으로 전용” 경찰 고발 “자체 경비 사용액 회수... 연구소 설립 의뢰”

의정부 사패산 관동 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이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피해보상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업체인 (주)서울고속도로가 '수행환경보전' 명목으로 2004년 10월 봉선사를 거쳐 회통사에 지급한 10억원. 회통사는 사패산 관동 터널 공사가 진행될 당시 분사인 봉선사 등과 함께 수행·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돈에 대해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보성 스님이 "피해보상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봉선사 주지의 관공비와 장학기금 명목 등으로 전용된 것이 확인됐다"

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과 회통사 주지 성권 스님을 10월 25일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철안 스님은 "지난해 10월 교구 말사인 회통사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고속도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회통사에 전달했다"며 "보성 스님의 말처럼 전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철안 스님은 또 "일부 자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한 것은 있으나 모두 회수했다"며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지급은 돈을 모두 회수해 조계종총무원에 연구소 설립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 회통사도 11월 3일 해명서

를 내고 "1차로 수령한 10억원을 봉선사로부터 건네 받아 이 중 2억원은 회통사의 수행환경 개선과 사패산 관동터널 반대활동 경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회통사 수행환경기금' 명의로 통장으로 보낸 데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사패산 터널 보상금 전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것은 고발자의 내용만을 보도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관공비", "대중보시" 등으로 돈을 지출한 철안 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의 책임 있는 기관은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과 봉선사, 회통사는 10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피해보상금 10억원과 올해 안에 지급될 2차 보상금을 합쳐 '환경사회연구소' (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 의정부 흥법사 대형공사로 몸살

### 교량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대책마련 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정부 흥법사(주지 지섭)가 10월 30일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행환경 보전 방안 수립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흥법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행환경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웃 종단의 사람들과 함께 수행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고 강조했다.

흥법사 주지 지섭 스님도 "사찰 바로 앞에 대형 교량이 들어서면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활동은 불가능해진다"며 "관계 당국은 사찰 이전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서울고속도로는 10월 26일 흥법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찰 바로 앞 부지에서 대형 교량 건설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

유철주 기자

## 북한 경제살리기 불교계 앞장

### 불구공장 설립·석재광산 개발 추진

불교계가 북한에 비누 및 불구공장 설립과 석재광산 개발 등 남북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1일 "북한동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추진중인 비누공장은 생활필수품인 만큼 평양에 설립될 예정이

며 해주지역에 석재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만나 승복, 등, 염주 등 불교용품 생산하는 불구공장을 평양에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우·유철주 기자

## 사경전문가 김경호씨 부다피아 갤러리 오픈

사경전문가 김경호씨의 작품세계를 부다피아 갤러리(www.buddhapia.com/Service/gallery/\_000000006/)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김경호씨의 사경은 경전의 문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구들이 불화 만다라 등과 결합해 예술로 승화된다.

11월 초 오픈한 사경 갤러리에서는 불상의 복장이나 납탈 봉양으로 작성되는 두루마리 <금강경>을 비롯해 <백화도량 발원문> <김상팔보도> <보현보살도>에 <화엄경>보현행원 품을 사경한 응운 사경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경 작품 중에는 가정에 모셔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들도 있어 관심을 끈다.

김지연 기자



미국명 독일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다 타계한 윤이상 선생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11월3일 조계사에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윤이상 선생의 바이올린곡 '리나가 정원에서'를 연주하는 다니엘라 등. 사진=박병영 기자

## 윤이상 추모음악회 남북 사찰서 동시에 열려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식과 추모음악회가 11월 3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도 윤이상 추모제가 개최됐다. 사찰에서 추모식과 음악회를 한 것은 선생의 타계 10년 만에 처음이다.

조계사 추모음악회에는 안숙선 명창의 회심곡,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베를린-평양-베이징 공연에 이어 조계사에서 무대에 선 윤이상 앙상블은 "평양과 서울 공연을 통해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이상 앙상블은 1997년 독일 오보이스트 부카르트 글레츠너의 제인으로 생긴 전문 연주단체이다.

김지연 기자

## 지방경찰청 불자회 경사났네

### 경범죄 처벌 4년만에 전국에 모임 결성

전국 250여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다져온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이하 경찰불교회)가 경사를 맞았다. 지방경찰청 가운데 불자모임이 없어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이 11월 5일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경찰불교회는 출범 4년여 만에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든 지방경찰청에 불교회를 결성했으며, 2001년 4월 47개였던 소속 불교회도 130여개로 늘어났다.

지방경찰청 불교회를 중심으로 예하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국 220여 경찰서의 불자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조직으로 활용하는 조직체계도 완전하게 갖추게 됐다. 경찰불교회는 이를 계기로 각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앞으로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와 회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성지순례, 교리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지역 각 경찰서에 불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지원 활동도 펼쳐 나간다.

백순상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장(정보2계장·경감)은 "가장 늦은 출발이지만 전북지역 경찰불자들을 하나로 묶어 알찬 생활활동을 펼치는 신협단체로 키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병영 기자



## 동국대 100돌 엠블렘 확정

2006년 5월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렘을 최근 공개했다. 새 엠블렘은 미래로 도약하는 동국대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청색바탕에 불교와 동국대의 상징인 '흰 코끼리'와 숫자 '100'을 도안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는 "젊음, 희망, 새로움, 도전을 의미하는 청색과 온기, 학문의 성취와 배움, 행운을 의미하는 노랑색, 흰, 에너지, 변화, 열정, 번영을 의미하는 붉은색을 각각 도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엠블

렘은 배너, 건물wrapping, 홍보책자, 포스터, 기념품, 행사안내판, 현수막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된다. 조용수기자

##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생' 제11회 불교인권상 선정

제11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생대책위원회'가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상임공동대표 진관 등)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집을 지키기 위해 2003년도에 스스로 단체 만들어서 그동안 활동한 것이 인정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뿌리 뽑히는 상황에서 평생 주민들의 운동은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돼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5시 한 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열린다. 유철주 기자

## “허물 벗고 情 나눴어요”

### 철도공사 불자회-탈북 새터민 만남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불자회(회장 김해수) 회원 14명과 탈북 새터민 8가족이 대전 유성구 송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철도공사 불자들의 초청으로 청년대와 문의문화재단이 제를 떠나기 위해서다.

첫 행사인 청년대에서 대통령의 별칭을 관란한 새터민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내비쳤다. 북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함께 점심을 나누어먹던 철도불자들과 새터민들 사이에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감동된 어색한 분위기도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겨서는 친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7시간여의 짧은 만남에서 새터민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에서 느꼈던 서운함을 털어내는 듯했다. 철도공사 불자들은 8가족의 후견인을 자청했다. 새터민 가족의 아이들과 철도공사 불자가족의 아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만나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만남은 짧았지만 긴 여운이 남는 아쉬운 작별이었다.

박병영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회 주 성암 종범  
주 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